

桐工芸

歴史

金沢の桐工芸の起源は、室町時代からとも、江戸時代からとも言われている。明治20年代に、加賀蒔絵の巨匠大垣昌訓[おおがきしょうくん]が、桐火鉢に蒔絵加飾の技法を創案した。無地無色で豪快な桐の肌に、華麗な伝統蒔絵を施した火鉢は、部屋を華やかに演出するものとして喜ばれた。

挽き物形成で美しい特色を持つ金沢桐火鉢は、明治31、32年(1898、1899)ごろから中川與三郎によって生産、販売され、桐工芸の名が徐々に広まり、県内はもちろん、関東、関西から北海道、樺太まで出荷された。火鉢とともに仕上げた小型の煙草盆などの商品も増え、大正14年(1925)には金沢桐火鉢組合が結成され、大正末期から昭和初期にかけて、業界は販路を拡大していった。

特色

桐の木質は草に似た組織を持ち、気孔が多く軽くて割れにくいのが特徴です。耐湿、耐火性に優れ、物の保存に向いているため、箆笥[たんす]などの材料として最適である。

桐工芸品はこの特質を生かして、木肌の軟らかさと、温かみのある感触が、独特の風合いを醸し出している。桐火鉢は他県でも生産したことがあるが、材料の不足などもあり、現在では金沢が全国屈指の特産地となっている。

桐は早く生長し、県内全域で生育するが、白山麓、特に石川郡鶴来方面(現・白山市)の桐材がよく使用されている。



오동나무공예

역사와 특색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에 가가마키에의 저장인 오가키쇼쿤이 오동나무화로에 마키에 장식기법을 창안했습니다.

만물형성으로 아름다운 특색을 지닌 가나자와 오동나무화로는 1898년, 1899년경부터 나카가와 요자부로에 의해 생산, 판매되면서 오동나무공예의 이름이 서서히 퍼져나가 현재는 물론, 간토, 간사이로부터 홋카이도, 사할린까지 출하했습니다. 화로와 함께 만든 소형 담배용기 등의 상품도 늘어나, 1925년에는 가나자와 오동나무화로조합이 결성됐으며, 1920년대 후반에 걸쳐 업계는 판로를 확대해 갔습니다.

오동나무의 목질은 풀과 비슷한 조직을 지니고 있어, 기공이 많고 가벼워 잘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습, 내화성이 뛰어나 물건을 보관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장농 등의 재료로 가장 적합합니다.

오동나무 공예품의 이런 특성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나무결과 따사로운 감촉이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나자와는 전국 굴지의 특산지로 유명합니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花器・銘々皿・小箆笥、小物(꽃병, 각자접시, 소형장농, 소품)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金沢桐工芸振興会(가나자와오동나무공예 진흥회) 〒920-0932 金沢市小將町5-10(가나자와시 고쇼마치 5-10) TEL (076) 231-2475